

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작

위원 35명 위촉장 수여 역량강화 교육 등 실시 임기 2년, 편성과정 참여

전북도는 2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새로 선발된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위원은 지난 8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시군대표 17명을 비롯하여 실국예산협의회를 통해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 11명, 재정전문가 2명, 예산관련 공무원 5명을 포함 35명으로 구성, 임기는 2년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사항, 실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제출한 사항,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새로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도정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 및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할 등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시작됐다.

2018년 도 재정여건, 재정운용방향, 2018년 예산편성(안) 등을 보고 받고, 2018년 예산편성(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반적 경제여건은 수출 호조로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사드(THAA)보복 등으로 내수증가세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2.5% 내외의 경제성장이 전망된다.

지방세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적인 금리인상의 압박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건전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더불어 도민의 요구가 반영된 예산을 만들어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한편, 도에서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미편성하는 등 재정투자 심사 등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행사 축제사업 및 지방보조금에 대해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 행사 축제 사업 및 지방보조금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전북재정을 통한 재정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분야별 직능별 토론회 및 간담회, ARS 여론조사,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통해 도민의 예산참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 삼라농정, 토탈관공, 탄소 등 도 핵심사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기틀 마련 및 안전, 소방, 재난, 재해의 선제적 대비 및 복지일자리 등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요구가 반영된 예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맛좋은 감자 드세요" 24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2층 특별전시관에서 열린 '감자의 변신은 무죄! 감자의 무한매력' 전시회에서 이영희 국립식량과학원 원장과 청 어린이집 원생들이 전시된 감자를 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29일까지 열린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사격

공공구매 전시·상담회 혁신도시 이전기관 참여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전시·상담회가 국토정보공사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기관(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전기안전공사) 및 전북 교육청 산하 6개 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구매 전시·상담회를 24일 국토정보공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시·상담회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 9개 기관이 참여하여 도내 44개 중소기업과 1:1 구매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전시·상담회와 함께

12개 참여기업에서 생산 제품을 전시하여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상담회에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사무용가구, 디자인, LED조명, 콘크리트제품, 냉·난방기, 컴퓨터 등 공공기관 등의 수요가 예상되는 제품 위주로 신청을 받아 상담을 진행했으며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기업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참고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연도 제품구매 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상담회에 참여한 미동체어 이재현 대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제품을 많이 구매해 주길 기대한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마련되어 판로확대에 기대가 크며 앞으로도 상담회에 적극참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내수수업지원과장은 "최근 국내의 경제상황이 위축되어 도내 중소기업이 판로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상담회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구매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국 중소기업융합대전 개막 중소기업인 1000여명 참석

전북도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익산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중소기업 중심 협력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구호로 '2017 전국 중소기업융합대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간 사업종(異業種) 교류협력 및 기술융합을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한 유망자 포상과 함께 컨퍼런스,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해 중소기업간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확산하기 위한 장(場)으로 마련됐다.

개막식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장과 1,000여명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이 기반한 기술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협력

생태계 구축'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성장 중소기업을 양성하는 토대임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1부 개막식, 2부 컨퍼런스, 3부 교류 플라자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환영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업종 간 교류와 융합을 통한 기업의 혁신성이 중요하며, 투자 확대 시 대한민국 미래비전의 땅 새만금에 투자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고충해결... 신문고를 울려라!"

국민권익위, 전주 평화동서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내일 오전10시 ~ 오후 4시

기초생활수급자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지역특성과 다양한 민원수요에 맞추어 자체 전문 조사관 뿐 만 아니라 전주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택관리공단과 함께 상담반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 노인·장애인 고충 등 사회복지에 포함 한 지역주민의 고충을 상담하는 소통의 자리가 26일 전주시에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평화주공1단지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취약 계층이나 마땅히 어려움을 호소할 곳을 몰라 힘들어 하는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현장중심의 민원 서비스이다.

특히, 이번에 이동신문고를 운영하는 평화동 지역은 등록 장애인 1600여명과 기초생활수급자 2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평화사회복지관이 속한 평화주공1단지 1천 650세대 중 1천 380세대(83.6%)가

고충이나 애로가 있는 주민은 누구나 서류 등 별다른 준비 없이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하면 분야별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신문고를 적극 운영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 양파·마늘품목 신청분야

전북도는 24일 민선6기 삼라농정 핵심사업인 2018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이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품목 중 동계작물인 양파, 마늘의 신청·접수를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는 지역적 특색과 폭넓은 농업인 수혜를 위해 시군별로 2개 품목을 추천받아 마늘, 양파, 생강 등 7개 품목으로 확대해 내년까지 유지한다.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와 마늘은 보통 10월에서 11월까지가 파종시기이며, 경작을 결정할 농업인은 시군 통합 마케팅조직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품목의 주 출하기(2018년 6월 상순 ~ 8월 하순)까지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삼라농정의 핵심사업으로 자리잡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 경영 안정시스템이 되도록 꾸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 삼현이엔지
업종 : 자동차무용업체

대표이사 **강연창**

전북 남원시 경지동 1길 20-15 (경지동)
TEL. 063-625-0271
FAX. 063-626-0275
H.P. 010-5511-9344
E-mail. khc3h@naver.com

일식 전문점
미가도 일식

각종칼국수/팽이버섯/우육면/낙지/기타저녁산

대표 **김윤관**

남원시 동천길 86 (하정동)
TEL. (063) 625-2044
H.P. 011-680-2046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